

『유암총서(柳庵叢書)』 국역문 일러두기

김형만(金炯萬)

1. 표해시말(漂海始末)은 김정섭(金貞燮)이, 운곡선설(雲谷船說)·거설답객난(車說答客難)·제거설(諸車說)은 김형만(金炯萬)이 우리말로 옮기었다.
2. 표해시말(漂海始末)의 저자란이 마멸되어 “牛耳□□□述”로 옮기었다.
3. 원문에 저자가 붙여 넣은 본래의 주(注)는 국역문 사이에 []로 묶어 작은 글씨로 표기하였다.
4. 한문 표기가 필요한 곳은 ()안에 표기하였고, 주석이 필요한 곳은 일련번호로 표기하여 간략하게 하단에 붙여 놓았다.
5. 운곡선설(雲谷船說)은 서문·본론·발문의 체계 속에 본론 부분이 본문·본문의 주(注)·저자 자신의 안설(案說)로 구성되었다. 구분하여 읽기 편하도록 그 사이에 한줄씩 공란을 두었고, 본문의 주(注)는 글씨체를 달리하여 표기하였다.
6. 거설답객난(車說答客難)은 객(客)과의 문답형식을 빌려 자문자답하여 서술되었다. 국역문에는 객(客)의 물음과 답(答)이 대비되어 드러나도록 그 사이에 한 줄씩 공란을 두었고, 글씨체를 달리 하였다.
7. 국역문의 문장은 윤문(潤文)보다는 원저자의 뜻을 가감 없이 전하고자 노력하였다.
8. 백성들의 이용후생(利用厚生)과 국가의 경제(經濟)를 살피고

- 『주례(周禮)·동관(冬官)』의 결루(闕漏)를 보충하려는 저자의 뜻이 국역문을 통해 얼마나 충실히 전해질지 경서(經書)를 읽는 후학(後學)으로서 염려가 앞선다.
9. 역자의 과문천견(寡聞淺見)으로 이의전의(以疑傳疑)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 천착류람(穿鑿謬濫)하고 부회조삽(附會粗澁)함을 면하기 어려워, 제현의 질정을 바란다.
10. 원문 자료는 문채옥씨 소장본 『유암총서』를 저본으로 하였다.
11. 국역에 참고한 문헌은 아래와 같다.
- 『周禮』 (영인본, 학민문화사, 1997)
- 『周禮直解』 (나종국, 강서인민출판사, 1993)
- 『十三經注疏』 (영인본, 중국 중화서국, 1980)
- 『莊子集解』 (淸 광경번, 중화서국, 1961)
- 『孟子』 (영인본, 학민문화사, 1996)
- 『墨子閒詁』 (淸 손이양, 중화서국, 2001)
- 『中國歷代人名大辭典』 (상해고적출판사, 1999)
- 『漢語大辭典』 (중국한어대사전출판사, 2001)
- 『四庫全書總目提要』 (중국 해남출판사, 1999)
- 『韓國史年表』 (정신문화연구원, 동방미디어, 2004)
- 『春秋左氏傳』 (영인본, 학민문화사, 1998)
- 『大典會通』 (영인본, 보경문화사, 1998)
- 『禮記』 (영인본, 학민문화사, 1990)
- 『한국의 옛 시』 (김희보, 종로서적, 1986)
- 『周易』 (영인본, 학민문화사, 1998)
- 『한국고전용어사전』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 『한국한자어사전』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6)
- 『字通』 (白川 靜, 日本 平凡社, 1996)
- 국어대사전, 한국인명사전 등 기본공구서.